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늘의 영역은 에베소라는 땅의 영역과 대립합니다. 에베소의 영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곳이지만, 하늘의 영역은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 곳입니다. 그 하늘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3)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살림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겉모양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믿으라거나 은혜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믿음과 은혜라는 말이 현실에서 별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벤처 기업가가 기발한 아이템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시다. 그가 다른 기업가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변 환경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국제 경제 흐름이나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역사와 인간 삶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성공을 선물로 여길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서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겠지요. 믿음과 은혜를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사실에 도취할 뿐입니다.

4) 얼마 전에 저는 유튜브로 어릴 때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게 된 여자에 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인 그녀는 설거지와 식사 준비에도 완벽하게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정원에서 그녀는 꽃 한 송이를 손의 촉감으로 느끼고 있더군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생명 깊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조건에 놓였던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자체에 얼마나 집중하나요? 그 신비에 얼마나 놀라워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망상이 가득하여 어느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집중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죄로 죽은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위태롭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경고했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인생을 대충 보낼지 모릅니다. 폭식증 환자처럼 먹어 치우는 쾌락만으로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4년 3월17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6주



광종기 김성미  
부부 집사의 생애  
첫 제주도  
여행(3월6일-9일)  
에서 찍은 '검멀레  
해변' 풍광이다.  
검멀레는 제주도  
말로 '검은  
모래'라는 뜻이다.  
이곳은 일출 및  
일몰 명소이기도  
하다. 사진 오른쪽  
아래가 해변인데,  
해변 끝에는  
고래가 살았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다. 사진을 찍는  
저 순간 구름  
사이의 햇살, 그  
햇살을 반사하는  
바닷물, 검은  
바위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검멀레  
해변은 제주도에  
떨린 작은 섬  
우도 남동편에  
있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목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사랑의 능력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온 세상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의 끝자락인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과 직간접으로 연대하겠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 [ 알리는 말씀 ]

- \*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입니다. 다음 주일인 24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 \* 예배 후에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 오늘 휘장은 조르쥬 루오의 '법정에 나온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 5주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시편43:1)
- \* 지난주일(3월 10일) 헌금: 1,515,000원  
- 주일헌금 265,000원 통장헌금 1,25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 2024년 3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3월24일	김동호 목사	윤동희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시청각실>
3월31일	박재진 목사	윤혜정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아트컬리지5>

## 지난주일(3월10일) 설교 발췌

제목: 죽음에서 살림으로! (엡 2:1-10)

1) 인간 세상이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요즘처럼 누릴 게 많은 시절에 진노는 무슨 진노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에베소의 시대정신에 빠진 사람들을 바울도 설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대정신에 폭 빠지면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체제 깊숙이 떨어져서 돈에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거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바울 당시 에베소의 시대정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 전체가 병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몸에 송곳이나 불이 달아도 깨닫지 못하듯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의 병 증상을 느낄 수 없습니다.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로 받은 일상을 기쁨 충만하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값싼 자기 사랑에만 몰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구원인 듯이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직간접으로 깊이 예속되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 소 서 그리스도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 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 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 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반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 찬송」 83장 (귀하도다 십자가여) ... 다 함께

V. H. C. Fortunatus

이건용

♩ = 76

1. 귀 하 도-다 십 자 가 여 나 무 중-의 나 무 여  
 2. 타 는 목-에 십 초 를 받 고 시-고 못 박 혀  
 3. 십 자 가-의 그 무 엇 이 주 를 감-당 하 리 오  
 4. 수 난 하-신 구 세 주 께 감 사 찬-송 드 리 고

그 앞 구-꽃 그 열 매 에 비 길 것-이 없 도 다  
 옆 구-를 지 켜 때 에 피 와 물-이 없 트 니  
 물 빠-진 우 리 들 을 피 와 구-원 하 시 려  
 한 몸 이-룬 성 부 성 령 향 상 경-배 합 니 다

귀 한 나-무 귀 한 못 이 귀 한 짐-을 지 도 다  
 땅 과 바-다 별 과 주 이 고 모 든 죄-를 씻 도 다  
 피 사-신 방 성 -로 삼 위 영 원 하 무-궁 하 시 가  
 거 하-신 성 -삼 위 영 원 하 무-궁 하 시 다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참된 로고스이며 생명의 근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 31:31-34 ... 최선아 집사

성시교독 시편 51:1-12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제게자비 베푸소서 인자하신 주하나님 죄와허물 씻기소서 은혜로운 주하나님  
 -제영혼에 숨은죄와 제마음에 있는허물 말끔하게 없애소서 깨끗하게 씻기소서  
 저의잘못 아옵니다 저는진정 죄인이며 제삶에는 곳곳마다 죄와허물 많습니다  
 -오직우리 주님에게 죄를짓고 말았으니 주님께서 내려주신 유죄판결 율습니다  
 모태안에 있을때에 이미죄가 생겼으며 태어나는 그때부터 이미죄인 이옵니다  
 -제마음이 진실하길 주님께서 원하시며 제마음이 지혜롭길 주님께서 바라시니  
 우슬초로 씻으시면 제가정계 되오리다 주여저를 씻기소서 눈보다도 희리이다  
 -기쁜소리 즐거운말 다시듣게 하옵소서 이몸빠는 꺾였어도 기쁜소리 외치리다  
 주님이여 저의허물 그냥두지 마옵시고 이모든죄 깨끗하게 지워없애 주옵소서  
 -주님이여 제마음을 정결하게 고치시고 제영혼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앞에서 살던저를 쫓아내지 마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영을 거두시지 마옵소서  
 -베푸시는 주님구원 누리도록 하시오며 새롭게될 제영혼을 확실하게 붙드소서

둘째 말씀 히브리서 5:5-10 ... 최선아 집사

\*셋째 말씀 요한복음 12:20-33 ... 최선아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아 멘 아 멘 아 멘 아 멘

아멘송

설교 새 언약의 날 ... 박재진 목사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1, 2절 ... 다 함께